

대한민국 청년정책, 2025 고졸성공 취업·창업 페스타에서 만나 보세요

- 9월 16일 「2025 고졸성공 취업·창업 페스타」에서 온통청년 홍보
- 고등학교 졸업(재학)생, 청년 구직자 등 대상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일자리·주거·교육 등의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 제공

한국고용정보원(원장 이창수)은 9월 16일(화) 양재 aT센터 1전시장(서울 서초구)에서 개최되는 「2025 고졸성공 취업·창업 페스타」에 참가한다고 밝혔다.

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, 교육부 등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재학(졸업)생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.

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, 복지·문화, 교육 등의 다양한 중앙정부 청년정책*을 안내하고 진로·취업에 고민이 있는 고등학생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.

* 미래내일일경험, 청년도전지원사업(고용부), 청년문화예술패스(문체부), 주거안정장학금(교육부) 등

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*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펼친다.

* 온통청년(www.youthcenter.go.kr):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(중앙부처·지자체)과 전국 청년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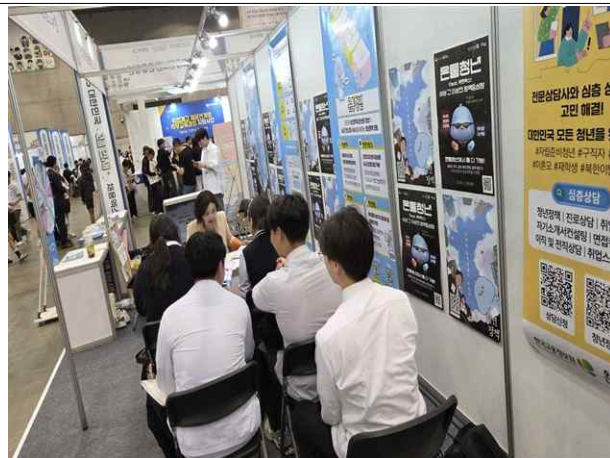
한편, 지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(1.14.~1.16.), 무브 온 페어(2.8.), 고졸인재 채용박람회(5.28.~5.29.) 등 총 5차례 행사에서 취업준비생, 학생, 국군장병,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,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.

향후, 9월 20일(토)~21(일) 청년의 날(국무조정실 주관) 부스 운영을 통해 온통청년 및 청년정책을 홍보하며 인지도 제고와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
이창수 원장은 “온통청년은 청년이 정책을 더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된 플랫폼이다”라고 말하며, “많은 청년이 청년정책을 알게 되어 사회진출에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	책임자	팀 장	김성두 (043-870-8313)
		담당자	대 리	임규인 (043-870-8895)





※ 사진설명 : '2025년 고졸인재 채용박람회'에서 학생들이 온통청년 부스를 찾아 청년정책상담 및 온통청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.(사진은 고졸인재 채용박람회 행사사진)



주최 **매일경제**  **교육부**  **고용노동부**  **중소벤처기업부**  **대안상공회의소**

주관  **한국장학재단**  **HRDK 한국산업인력공단**  **KOSME 중소기업진흥공단**

후원  **인사혁신처**  **KOEf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**